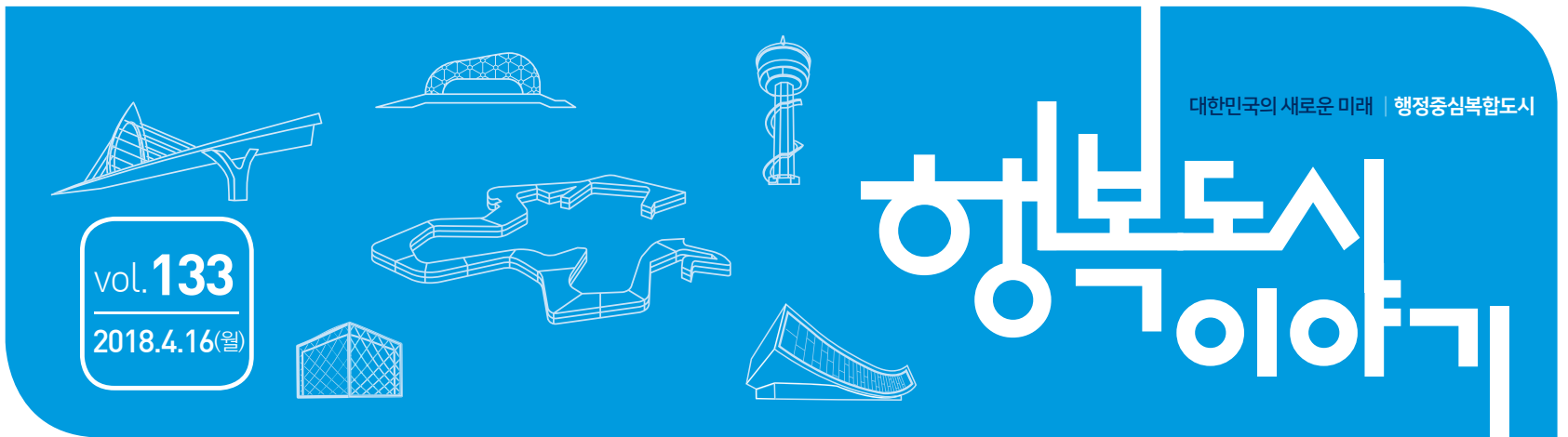




행복청·세종시·LH,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손잡아

-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해
-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 협약(MOU)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9일(월)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이원재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 ▲ 규제개선 및 민간 아이디어 발굴
- ▲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신거버넌스 구축·운영
- ▲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 기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시범도시 지원 특별팀(T/F)'*(2018년 4월~)을 기반으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관계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행복청), 사업시행자(LH·K·Water), 지자체(세종시·부산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3개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부지·건축공사, 실제 도시운영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을 위한 기술을 토대로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 있는 도시"라며, "모든 세종 주민, 나아가 모든 국민이 혁신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행복청, 세종시, LH, 스마트시티 조성 MOU체결〉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세계적 스마트시티 모델로 건설하는 곳으로, 지난 1월 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세종 합강리(5-1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 두 곳을 선정하여, 시범도시 추진체계 구성 및 기본구상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편의시설(복합체육시설) 본격 착수

-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 본격 착공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제7주차장 일부 이용 제한 및 인근 임시주차장 운영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인근(現 제7주차장)에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복합체육시설)'가 본격적으로 착공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제7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인근공원 내 대체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복합체육시설' 공사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공사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제7주차장 부지 상부의 약 380면을 올해 말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인근 근린공원 내 임시주차장 약 200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래화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복합편의시설 공사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복합편의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청사 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삶의 활력소가 되는 행복도시 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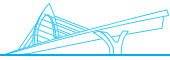
한편,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의 주차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편의시설을 청사 주변 6개 부지에 3개 공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복합체육시설은 사업비 1100억 원, 연면적 3만7937㎡ 규모로 수영장·다목적홀·실내 풋살장 등을 포함하여 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복합주차시설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등 총 4개 부지에 2019년 7월까지 사업비 926억 원, 연면적 5만3204㎡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문화시설은 교육부 인근에 사업비 424억 원, 연면적 1만9735㎡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문화공연·강좌·유아 교육·동호회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로서 2019년 6월에 완공되면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주차장 운영계획도〉



행복도시, 아홉 번째 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 새롭동(2-2생활권) 복컴 준공, 지역 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새롭동(2-2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을 3월 27일(화)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동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은 총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4100㎡(부지면적 8086㎡)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소통의 매듭’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구상하여, 이웃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어린이집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문화의 집,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관람석을 구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는 각종 행사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총 170석 규모의 문화관람실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곳곳에 자연친화적 커뮤니티 테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과 주민들의 만남·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행복커뮤니티 특화권역’으로 지정된 새롭동 특색에 맞게 지하차장과 부대시설도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지하차장 14개소 및 여성화장실 1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방송 및 시시티브이(CCTV) 감시 체제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광장 및 건물 주변을 하이브리드 보안등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상철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새롭동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은 2012년 7월 개관한 한솔동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에 이은 9번째 시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4월 고운동(남측)과 소담동에 10번째, 11번째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이 완공되면 행복도시 내 계획된 시설의 절반이 건립되어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동(2-2)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청, 진로체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계공모 시행

■ 친근한 디자인과 기능에 충실한 설계로 이용자들 접근성을 높인다

행복청은 (가칭) 「창의진로교육원」과 복합주민공동시설인 「나성동(2-4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에 대한 설계 공모를 4월 중 시행한다고 3월 21일(수) 밝혔다.

우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한다. 행복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학령인구 비율이 최고인 도시인데 반해, 그에 걸맞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중등교육 직업탐색과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

하여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의 공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는 행복진로교육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주요 내부시설로는 진로도서관, 소공연장, 진로상담실, 어린이체험관, 직업체험관, 진로수업실, 진로교육연구실, 동아리 세미나실, 천문시설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설기획 및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게 될 세종시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진로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성동(2-4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도 창의진로교육원과 함께 4월 중 설계 공모를 시행하며,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입주 시기에 맞춰 완공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이 건립되는 부지는 인근 아트센터, 박물관단지, 역사공원, 제천 등이 연결된 문화·복지축 등과 주변 교육·문화·주거·공원·상업시설과도 연계토록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행복청은 그동안 통합주민공동시설(복컴) 건립의 다양한 경험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관 위주의 설계에서 벗어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주민공동체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설계공모 기획단계에 전문가를 참여 시켜 주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 하기 위해 ‘공동체 만세(Viva! Community)’라는 주제로 ‘지역친화’, ‘효율적 기능구성’, ‘스마트 환경구축’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공간구성과 동선체계,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하고, ‘스마트 건축물(Smart Building)’을 위한 친환경, 범죄예방디자인(CPTED)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도 적극 도입 하여 공모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철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는 외관만 화려한 디자인 계획에서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디자인과 기능 모두 충족하는 우수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예정인 2개 사업 일정은 4월 중 설계공모 시행 및 6월 중 당선작 선정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Slogan

"공동체 만세! (Viva! Community)"

Vision

지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2-4 복합커뮤니티센터

Theme

주민친화

- 지역특화 : 청소년시설(Maker's Space ...)
- 지역연계 : 주변시설 및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 디자인 : 휴먼스케일 공간과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구현

효율기능

- 공간구성 : 평면적, 단면적으로유기적이고 효율적인공간배분
- 동선체계 : 편리한 기능 구분과 명쾌한 이용자 동선
- 시설관리 : 관리자 관점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스마트

- 스마트 안전 :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자인
- 편리한 사용 : 모든 시설이용자를 배려한 디자인
- 친환경 : 저영향개발기법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개념 적용



〈2-4생활권(나성동) 통합주민공동시설 기본구상〉

천문시설관/옥상정원

카페테리아 · 소방탈출구

진로이해와 실천

- 진로수업실
- 진로교육 연구실
- 직업체험관6-7
- 동아리 세미나실

공용시설

진로체험

- 직업체험관1-5
- 경영금융·공공운송·의료여가·문화예술·과학기술

카페테리아·사무실·문서고·공용시설

진로탐색

- 진로상담실
- 어린이 체험관
- 진로도서관
- 소공연장 2

보건실·사무실·문서고·공용시설

생애진로설계

- 진로도서관
- 소공연장 1

카페·로비·사무실·문서고·공용시설

주차장·기계실·전기실

〈창의진로교육원 공간구성방향〉



2행복도시 둘레길 가이드

최근 올레길이 건강형 여행형태의 대표적 주자로 떠오르면서 행복도시 둘레길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행복정에서는 행복 도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살려 금강수변, 전월산, 원수산 및 도시경계 산지를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 추진중이다.

둘레길은 소요시간, 이용자 유형, 경관요소 등을 고려해 총 18개 코스, 200km로 구성 되어 있다.

2018년 3월 현재 도시문화길 81km를 완료했고 외부순환둘레길, 내부순환생태 문화길도 일부 개통중이며 올해에는 추가로 도시문화길 16km를 조성할 계획이다. 20년 이후 외부순환길, 내부순환길 및 도시문화길 잔여코스(6개 코스 : 총 41.2km)를 조성· 완료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추진 현황

- 행복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외부순환길(40km)
- 중앙녹지공원을 순환하는 내부순환길(22km)
- 생활권별 공원녹지와 보도순환코스를 연결하는 도시문화길(16개 코스, 138km)

1코스



청사둘레길
6.0km /1시간 30분

2코스



금강나루길
19.7km /4시간 55분

3코스



아름도담길
8.4km /2시간 6분

4코스



원수산누리길
17.6km /1시간~4시간30분

5코스



전월산누리길
7.9km /30분~3시간

6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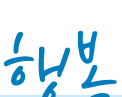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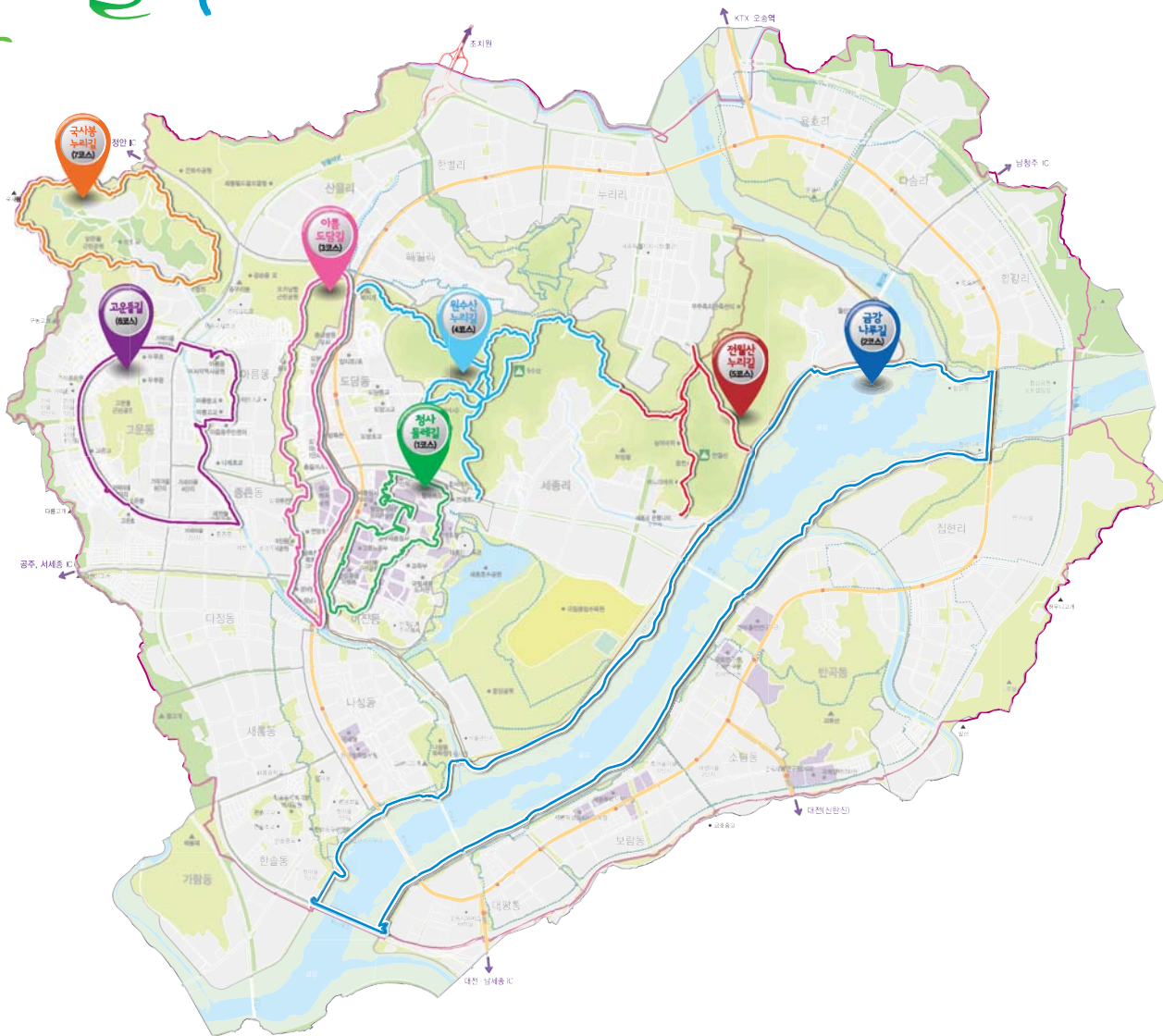


고운돌길
6.5km /1시간 38분

7코스



국사봉누리길
5.8km /1시간 27분



행복도시, 500만 광역도시권을 꿈꾼다

김우중_행복청 기획조정관



행복청 개청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원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들이 많다. 개청 초기 하하벌판에 임시 건물로 청사를 만들어 일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감사인력이나 복무감찰팀이 사무실을 못찾아서 되돌아갔다는 웃지 못할 일에서부터, 2011년말 첫마월에 주민들이 입주할 때 집들이를 오는 사람이 어찌까지 있던 길이 공사로 인해 없어서 해마다 그날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 불과 10여 년 전의 일들이 마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같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제일 먼저 기관 이전을 한 총리실과 기재부 등 1차 이전기관 직원들의 고생담 역시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될지 모르겠다. 당장 식당이 없어 주변 공사장의 소위 함바집을

전전했다는 이야기, 먹거리를 찾아 2~30분씩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 점심을 먹고 허겁지겁 귀청한 이야기들은 나처럼 도시가 기반이 잡힌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차마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러던 행복도시가 작년에는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무려 9개월 동안 1위를 하는 편하고 살기 좋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행복도시"로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두 힘을 합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이 아니었나 자찬해 본다.

그동안 행복청은 모든 건물과 교량에 창의적 디자인과 신공법을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살아가는 도시건축 박물관으로 만들고, 제로에너지·한옥풍·유럽풍·색채 특화마을 등 구역 별 테마와 디자인이 특화된 단독주택 마을 조성, 주민센터, 아동·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한 군데에 모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물적 인프라의 조성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간 담장을 없애고 생활권을 관통하는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문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BRT·지선버스·공공자전거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저영향 개발기법 도입, 에너지자립형도시 구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로·교통·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분야에 ICT·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표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다 인근 충청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당초 계획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행복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행복도시를 둘러싼 주변의 도시, 자치단체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행복정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초기에 수립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보완, 발전시키는 문제를 고심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주변과의 교류에 동맥 역할을 할 광역 교통망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행복청과 인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광역권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40km 반경의 광역권을 40분대 공동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BRT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변 도시들과 산업,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광역적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장기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도시의 초기 정착과 내실 다지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성장 동력 확충과 도시 효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분산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중심에 인구 500만의 새로운 대도시권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청접수기간
4.2(월)부터 상시접수
(LH 지역본부)

LH콜센터 ☎1600-1004

집주인 건설·개량형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LH에 8년이상
위탁임대(임대수준: 시세의 85%)하면
건설·개량 비용을 지원

가구 / 세대당
기금용자 ▶ 수도권 1억원/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집주인 매입형

주택을 매입하여 LH에 8년이상
위탁임대(임대수준: 시세의 85%)하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매입자금을 지원

가구 / 세대당
기금용자 ▶ 수도권 1억원/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올리고, 대출이자와 공실 부담은 내리고

정부에서 기금으로 저리용자(연1.5%)를 지원해주고
LH에서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용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 지원

교육부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한번에 찾아보세요!

- 약 60여 개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이 **한곳에**
- 나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한눈에**
- 신청시기 및 정책내용 변경 알림도 **한번에**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2018 대전시립무용단 기획공연 II
예술감독 겸 상임인무자 김효분

호부리 영감

호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2018.4.19. 목 19:00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주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시립무용단

후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AIB 중립협력자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 본 공연은 티켓링크에서 예매 후 입장가능 합니다.(전석무료)

밀마루 전망대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9:00~18:00, 연중무휴
(단,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

밀마루 전망대

위치_ 세종시 도움3로 58
(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 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 세종시 어울누리광장로 115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 044-867-791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tel 044.200.3095 fax 044.200.3099
www.naacc.go.kr

디자인·제작 세종아이콘(주)

행복청 SNS 채널

f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vol. 133
2018.4.16(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 이야기